

휴대폰 액세서리로 기능 Up, 개성 Up

지난 번 모바일 핫토크를 통해 다양한 모양의 휴대폰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다. 이번에는 단말기 제조사에서 제품 제작부터 설계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품 구매 후 사용자들이 스스로 꾸미게 되는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사용자들은 휴대폰의 기능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개성만점의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 액세서리를 사용한다. 제조사에서는 간단한 휴대폰 줄과 이어폰 등이 있긴 하지만, 좀 더 색다르고 독특한 컨셉의 액세서리들을 모아서 소개해본다.

글 임영모 객원기자

휴대폰 줄도 다 같은 휴대폰 줄이 아니다. 휴대폰 사용자의 개성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휴대폰 줄을 꼽을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할 때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줄을 끝까지 사용하는 사람도 많지만, 다양하고 화려한, 그리고 특수 기능을 갖춘 휴대폰 줄들을 사용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 단순하게 캐릭터 상품이나 인형류의 휴대폰 줄도 있으며, 사진을 넣어 아크릴 코팅을 한 제품, 꽃이나 식물 잎을 눌러 만든 제품, 거울 기능을 갖춘 제품, 액정 클리너 기능을 갖춘 제품, 나침반 기능의 제품 등이 나와 있다.

휴대폰 줄도 기능화 고급화 열풍

일반적인 것 이외에 눈에 띄는 몇몇 제품을 소개한다면 다음과 같다.



●모기 퇴치 휴대폰 줄

모바일 음원 콘텐츠 서비스 중 '모기퇴치 프로그램'이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름과 모기는 뗄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모기를 소리로 쫓는 게 도즈모바일에서 개발한 '모기퇴치' 프로그램이라면, 간단하게 휴대폰 줄을 이용하여 '향'으로 모기를 퇴

치한다는 액세서리가 있어서 눈에 띈다.

이 튜브형으로 생긴 휴대폰 액세서리는 튜브 안에 모기를 쫓아내는 특성을 가진 오일을 담고 있어 여름철 모기의 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인터넷 옥션 매장에서 7월 중순 현재가로 3,000원 선에 판매 중이다.

●내 휴대폰은 작은 정원?

휴대폰 줄에 매달린 자그마한 화분,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는 작은 식물. 1cm 정도의 작은 화분이 달린 제품으로 실제로 물을 주고 가꿀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판매상의 설명을 보면 채송화·세네시오·오색기린초·에케베리아·댄섬, 불사조·선인장·비조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각각의 꽃말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종종 햇볕에도 꺼내놓고, 너무 충격 주지 않도록 조심조심 다루어야 할 것 같다. 역시 인터넷 옥션 매장에서 7월 중순 현재가로 약 4,000~5,000원 선에 판매 중이다.



●카메라폰 사용자를 위한 액세서리

디지털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은 이제 보편화된 상태. 카메라폰만 있으면 굳이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능이나 성능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다. 웬만한 장소에서는 카메라폰을 가지고 사진 촬영에 여념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카메라폰용 보조 렌즈를 이용해 다양한 사진을 연출할 수 있다. 카메라폰의 내장 카메라 모듈과 이미지 처리 기술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몇몇 부분이 있다. 일반 소형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고정 렌즈이다 보니 다양한 표현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실내 촬영이나 셀프 촬영을 하다보면 카메라폰용 삼각대는 없을까 생각해 보기도 한다. 이 때, '왜 없어?' 라고 만사마님이 나오신다.

●다양한 사진 효과를 만드는 보조 추가 렌즈

특수 렌즈를 사용해 원하는 분위기의 이미지를 즉석에서 만든다. SLR 카메라 마니아들을 보면 큼지막한 카메라 가방을 늘 휴대하고 있으며, 그 가방을 열어보면 기본적으로 망원, 광각 등 각종 렌즈가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카메라폰 사용자에게도 그와 유사한 액세서리가 있으니, 카메라폰용에서 망원과 광각, 그리고 어안 효과까지 구사할 수 있는 보조 렌즈 제품이 있다. 회전형 렌즈가 아닌, 고정형 렌즈 제품인 휴대폰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하며, 전용 링을 기존 렌즈에 장착한 후 용도에 따라 추가 렌즈를 바꾸어 끼우며 사용하면 된다. 제품 및 호환성 등 자세한 정보는 세티즌 쇼핑몰(mshop.citizen.com)에서 볼 수 있으며, 가격은 렌즈별로 1만 8,900원(배송비 별도).

역시 세티즌 쇼핑몰에서 소개하는 렌즈로, 다양한 이미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조 렌즈 액세서리도 나와 있다. '재미있는 렌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컬러풀한 렌즈들은 각각 광각(노랑), 두께 감소/증가(빨강), 6방향 분산(청록), 3방향 분산(분홍), 하트모양 핑크/녹색 필터(연두), 별모양 블루/세피아 필터(블루오렌지), 반사광 제거(파랑), 접사(주황) 등으로 색깔별로 특색있게 이루어져 있다. 평소에는 휴대폰 줄 형태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니다가, 사진을 찍을 때 기존 렌즈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가격은 5,900원 선으로 쇼핑몰에 올라와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에서는 자체 700만 화소 카메라폰인 SCH-V770에 부착할 수 있는 망원 광각 컨버전 렌즈를 액세서리로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하니 이제는 카메라폰 사용자라고 해서 우습게 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이 제품은 SLR 카메라처럼 렌즈를 교환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렌즈를 장착하면 광학 5.1배줌(광학 3배×망원 1.7배)까지 촬영이 가능하다.

●카메라폰용 삼각대

소형 디지털카메라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 경우 카메라가 흔들려서 좋은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소충 사격 자세로 왼팔 상박을 몸에 붙인 고정 자세를 연출하더라도 이른바 '손각대(손으로 만드는 수동 삼각대)'로는 조금만 어두운 곳에서 촬영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손떨림의 잔상이 남은 이미지를 얻게 된다.

카메라폰용 삼각대는 없을까 조사하다가 필름나라(www.filmnara.co.kr) 사이트에 있는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하게 됐다. 일반적인 카메라 삼각대들이 볼트와 너트에 의한 조임으로 결합되는 반면, 이 제품은 좌우에서 제품을 잡아주는 홀더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 이것을 이용해 카메라폰처럼 삼각대용 너트가 마련돼 있지 않은 제품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좌우 홀더 기능으로 촬영기기를 잡는다는 것이 못내 불안해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의 제품이라 할 수 있겠다. 판매가격은 1만 1,000원 수준.

휴대폰 제품들 중에는 제품 설계 시부터 삼각대 장착을 고려해서 디자인된 것들(큐리텔의 PH-L4000V 등)도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일반 카메라 삼각대와 무리 없이 호환된다.



맛있는 껍데기는 가라, 다양한 휴대폰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의 유행도 바뀐다. 아저씨 패션이라고 불리는 허리띠용 휴대폰 지갑이 있었고,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던 파우치 패션도 있었다. 캐릭터를 살린 천으로 된 커버도 유행한 적이 있었고, 합성수지로 된 소프트커버를 휴대폰에 씌워 '생활 기스'에 대비하기도 했었다.

이 유행도 한 번 바뀌는 느낌이다. 이제는 하드커버 휴대폰 케이스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휴대폰 케이스 부분에서 니치 마켓을 노린 상품들도 눈에 띈다.

●깔끔한 스타일의 투명 하드 케이스

은은한 색상의 하드케이스로 휴대폰도 보호하고 개성도 연출한다. 휴대폰은 몸에 지니고 다니는 최고가의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방심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땅바닥에 떨어져 망가뜨리기 일쑤다. 기능상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바닥에 긁혀 흠집이라도 생기고 나면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후회막급 해진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던가? 만일의 사태를 위해 미리미리 휴대폰 케이스를 준비해 보자. 요즘은 예전의 소프트



커버의 경향을 벗어나 투명 하드커버가 유행하고 있다. 휴대폰 가격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중요한 순간의 후회를 막아줄 것이다. 또한, 이 하드커버는 커버를 벗기지 않고도 충전이나 핸드프린 연결 등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중 하나. 단말기 모델별로 판매되므로 자신이 보유한 모델에 맞는 제품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휴대폰용 하드 케이스의 대표적인 매장은 코집(www.cozip.co.kr)으로 메이커별, 기종별 하드케이스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 가격대는 기종마다 다르며, 대개 1만원에서 1만5,000원 선이다.

● 물 속에서도 걱정 없는 방수 케이스



여름철 계곡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할 때 늘 망설이게 되는 게 바로 휴대폰의 처리 여부다. 휴대폰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자니 물에 젖어 망가질 것 같고, 그냥 옷가지와 함께 두자니 어디서 어떤 연락이 올지 몰라 불안하다.

래프팅이나 수영 등 물놀이를 하거나, 비오는 날 인라인이나 조깅 등 운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피치 못할 이유로 목욕탕에서 전화 대기를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면 방수 케이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조사한 바로는 올해 신상품은 찾지 못하고 작년 판매되던 제품의 재고 상품을 찾았다. 현재도 거래가 되고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옥션 같은 매장에서 '휴대폰 방수케이스'를 찾아보시길 바란다. 슬라이드형은 모르겠으나 폴더형 제품까지는 지원하는 것 같으며, 케이스에서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통화가 가능하다. 목걸이형으로 목에 걸고 다니면 되며, 2개 1세트로 7,000원에서 1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 레포츠용 암 밴드

모한 선입견이랄 수 있지만, 허리춤에 차는 정보통신기기는 사용자의 원숙미가 느껴지고, 팔뚝에 차는 정보통신기기는 세련미가 느껴진다. 허리춤이 주로 연륜의 나이트를 담보한 풍성한 뱃살로 이루어진 반면, 팔뚝은 땀방울로 맺어진 탱탱한 근육으로 이뤄졌기 때문일까?

여름에 접어들면서 많이 보이는 휴대폰 케이스가 바로 암 밴드(Arm Band) 형태이다. 여름철 옷들이 다른 계절 옷들에 비해 호주머니가 작고 호주머니에 뭉가를 넣으면 모양새가 안 나는 이유도 한몫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이 목걸이형 혹은 팔뚝형



으로 올라와 버린 것이다.

특히 러닝, 인라인 등 운동을 할 때 휴대폰을 휴대할 수 있어서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옥션 판매자들의 판매가격은 대략 1만5,000원 선.

충전기 없어도 걱정없는 전원 동냥(?) 액세서리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전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배터리 전원이 완전 방전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호주머니에 현금과 현금카드 둘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연락처도 모두 휴대폰에 기록돼 있고, 상대방 연락도 기다려야 하고, 급히 전화도 써야 하고, 꼭 휴대폰 전원이 없을 때에 더더욱 휴대폰을 사용하고 싶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이러한 불편함 해소를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휴대폰 충전 기능을 갖춘 액세서리다.

● 옆 사람 휴대폰으로부터 전원을 공수받는 콘택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다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휴대폰으로부터 동냥해 보자.

전원 눈금이 가득 차있는 사람이라면 전원을 10분 정도 공급해달라고 한다고 해도 인색하게 굴지는

않을 것이다. 드림위즈 쇼핑 휴대폰 구급약 '콘택'으로 옆사람 휴대폰 전원을 동냥한다



사이트 등 몇몇 온라인 사이트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콘택'이라는 제품은 '휴대폰 구급약'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정통부 규격인 24핀 커넥터 단자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며, 10분~20분 정도 충전하면 배터리 2칸 정도는 충전된다고 한다. 의약품 중 '콘택***'과 비슷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휴대폰 줄 형태로 연결해 휴대할 수 있으며, 자체 플래시 기능도 갖추고 있다. 휴대폰 충전을 자주 깜빡깜빡하는 사용자라면 비상시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을 만 하다. 가격은 약 8,000원 선.

● USB를 통한 충전 기능을 갖춘 액세서리

충전 기능에 USB 단자 연결 기능까지 추가된 제품도 있다. '셀링크'라는 충전용 액세서리는 폰과 폰 간의 충전은 물론, USB 연결 단자를 갖추고 있어서 컴퓨터 등을 통한 USB 충전도 지원한다.

사무실에서는 USB 단자를 통해 PC나 노트북 전원으로 충전하고, 밖에서는 옆 사람 휴대폰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

기존에 USB 케이블 형태로 나와 있는 제품에서 케이블이 사라지고 휴대용 액세서리 형태로 바뀌면서 폰투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면 된다. 가격은 1만5,000원 선.

이외에도 태양열을 이용하여 충전하는 액세서리 등도 나와 있다고 하니, 휴대폰 충전 상태에 민감한 사용자라면 이러한 액세서리 등을 통해 해결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휴대폰이 첨단이면 액세서리도 첨단으로

최근 휴대폰의 기능이 대폭 변화하면서 이에 맞춰 관련 액세서리 시장이 각광받고 있다. 신규 휴대폰은 시장의 물꼬를 트고, 액세서리 개발사들은 그 물살에 걸맞는 상품들을 바쁜 걸음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 블루투스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린 블루블랙폰(SPH-V6900)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삼성전자가 출시한 '블루투스 스테레오 헤드셋'을 들 수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근거리 무선 데이터 통신 기술을 적용해 만든 이 제품은 블루블랙 모델(SPH-V6900)과 함께 출시돼 '블루투스' 바람을 일으켰다.



근거리 통신을 가능케 하는 블루투스 기술이나 개념이 이 상품에 처음 도입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스테레오 기술을 적용하면서 휴대폰으로서 핸드프리 상태로 통화가 가능하고 MP3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를 통해 블루블랙과 같은 블루투스폰용 헤드셋 액세서리 시장이 관심을 받는 효과도 발생했다. 삼성전자의 블루블랙폰 전용 헤드셋이 9만원이 넘는 선에서 판매되면서 '폰 따로 이어폰 따로'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하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블루투스라는 개념과 사용법 등 관심을 고조하는 효과를 고려해 본다면, 지금껏 기다려왔던 블루투스 주변기기 시장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기회를 가져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

● DMB 시대를 겨냥한 충전 겸용 소형 스피커

삼성전자는 위성 DMB폰 3차 모델(SCH-B200, SPH-B2000)을 내놓기에 앞서 이 제품의 액세서리인 '애니콜 시어터 윈도우'를 선보였



다. 충전 겸용 소형 스피커인 이 제품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위성 DMB 방송이나 음악을 들을 때 이 액세서리를 이용하면 한층 생생하고 풍부한 음량으로 프로그램과 음악을 즐길 수 있다.

DMB폰과 게임폰 등이 서서히 보급되면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화면 개인정보 보호 필름도 많이 찾는 추세라 한다. 이를 액정화면에 붙여두면 옆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을 훑쳐보더라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각박해 보이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작 당사자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러한 액세서리들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한다.

액세서리와 본체의 상생을 바라며

자가운전자들을 봐도 습성에 따라 차를 관리하는 요령이 다르다.

구입 당시 차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몇 년 동안 운행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한 달이 멀다하고 액세서리와 튜닝을 더해 차를 개조하는 사람도 있다.

타이어와 알루미늄 휠을 바꾸고, 램프, 스티어링, 기어박스, 오디오 패널, 시트 등 손을 댈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취향으로 바꿔내기도 한다. 차를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튜닝과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친구가 '쓸모없는 데 돈 쓴다'고 생각할 것이고, 튜닝과 액세서리를 좋아하는 사용자가 오리지널 선호자를 볼 때에는 '변화를 싫어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적응하는 수구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다.

휴대폰에 있어 액세서리 분야가 그리 잘 발달해 있지는 않지만 이와 비슷하다.

사실 출시된 상태로 사용하는 데 있어 그다지 불편을 못 느끼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화려한 휴대폰 줄이 필요하다거나, 휴대폰 케이스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거나, 카메라폰으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사진을 찍어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액세서리에 대한 부분은 관심 밖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이러한 액세서리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무언가를 덧붙여 꾸미게 되는 것은 주로 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거나,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것을 갖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 때 휴대폰 튜닝이 유행한 적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부분일 듯 하다.

액세서리 유형의 특징은 탄탄한 기본 환경 위에서 구현된다는 것. 단 말기의 기본 환경이 표준화되고 안정화돼 있으며 호환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좋은 부가 상품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액세서리 제조사들로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능으로 상품을 기획한다고 해도 다양한 제품과 규격의 단말기 시장에서 상품을 내놓는다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인 것은 자명하다. 커넥터의 표준화, 통신 규약의 제도화, 기기간 통신 기능의 규격화 등이 이뤄진 상태라야만 더 좋은 액세서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액세서리는 소비자의 취향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개성과 취향을 만족시킬 수 없다. 안정된 기존 환경이 구축되고, 다양한 액세서리 상품이 나와서 진정한 '나만의 휴대폰' 만들기 트렌드가 생긴다면 단말기 제조사도, 액세서리 산업군도, 소비자도 상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